

- 통계청·SK텔레콤 가명결합 활용 -
제주 한달살이 분석으로 제주관광 활성화 지원한다

- 지난 1년간 933만명 제주 방문, 이 중 0.4%인 3만5천여명이 한달살이
- 한달살이는 60세이상, 수도권, 유주택자, 고소득자 등 경제적 여건과 관련
- ‘바다’, ‘오름’, ‘숲길’이 풍부한 ‘제주다운’ 지역을 한달살이 숙박지로 선호
- 미취학자녀 동반 가족은 목장, 농장 등 체험형 관광 선호

통계청(청장 한훈),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 SK텔레콤(사장 유영상)은 제주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의 목적은 제주 한달살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의 수용태세 정비 등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SK텔레콤의 모바일 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한달살이 방문자의 주요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가명결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각각 가명정보화 한 뒤 연계하는 처리 절차

이번 분석의 키워드는 『제주 한달살이』로서 ①^{방문자}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②^{숙박지} 한달살이 방문자가 선호하는 숙박지는 어디인지, ③^{방문지} 선호하는 방문지는 어디인지 등이며,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소득 특성과 모바일 활동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21.8월~’22.7월} 제주를 찾은 방문자는 933만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94% 가량이 7일 이내의 단기방문자이고 0.4%인 3만5천여명이 한달살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한달살이를 선호하는 사람은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유주택자 등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여 한달살이가 경제적 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평소 ‘레저’관련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한달살이 경향이 컸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콘텐츠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살이 방문자는 제주 시내를 벗어나 ‘바다’, ‘오름’, ‘숲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다운’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하였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북쪽 해변지역과 동쪽 중산간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한편 한달살이 방문자는 선호하는 방문지로 숙박지와 유사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읍면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해변지역보다 북쪽 중산간 지역을 선호하였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동반한 사람은 목장, 농장,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이 용이한 지역의 방문을 선호하였다.

이번 공동 분석은 제주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또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어 통계등록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통계청, 제주관광공사, SK텔레콤은 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붙임】 통계청-SK텔레콤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제주 한달살이 분석결과 1부.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2-481-6903)
		담당자	사무관	이상엽 (042-481-6907)
담당 부서	제주관광공사 데이터R&D그룹	책임자	그룹장	정영림 (064-740-6077)
		담당자	PM	정근오 (064-740-6055)
담당 부서	SK텔레콤 Telco데이터사업팀	책임자	팀 장	전응배 (010-3740-1586)
		담당자	매니저	이동옥 (010-9668-5104)

- 통계청-SK텔레콤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제주 한달살이』 분석결과

2023. 3.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제주관광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SK텔레콤**의 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한 분석 자료이며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는 아님

* 통계등록부(인구·가구), 주택소유통계 등

** 통신 모바일 정보(위치·이동정보, 여가·취미 등 콘텐츠 사용 정보 등)

□ 유의사항

- **(방문자수)** 전체 제주 방문자수는 등록센서스^{통계청}의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모바일 가입자^{SKT}의 고객분포에 따른 제주 방문자수를 추정한 값이므로 실제 방문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군구/성/연령^{5세단위}별 인구 가중치 산출

- **(기준시점)** 작성 기준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명	작성기준시점	입수 항목	비고
통계등록부(인구/가구)	'20. 11. 1.	인구 및 가구 정보 (연령, 성별, 가구원수 등)	
주택소유통계DB	'20. 11. 1.	주택소유 여부	
건강보험자료	'20.1.1~12.31.	연말정산 보수 총액	
통신모바일정보	'21.8.~'22.7.	콘텐츠 이용일수 ^{10개유형} 제주 읍면동 방문일수 등	읍면동 ^{43개}
	'22.5.~'22.7.	제주 관광블럭 방문일수	관광블럭 ^{87개}

- 본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및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data.kostat.go.kr)에 게시 예정임

제주 한달살이를 들여다 보니...



지난 1년간 933만명 제주 방문, 이 중 0.4%인
3만5천여명이 한달살이



한달살이는 60세 이상, 수도권, 유주택자, 고소득자 등
경제적 여건과 관련



‘바다’, ‘오름’, ‘숲길’이 풍부한 ‘제주다운’ 지역을
한달살이 숙박지로 선호



미취학자녀 동반 가족은 목장, 농장 등 체험형 관광 선호

목 차

I. 제주 방문자 특성	1
1. 방문자 규모	1
2. 방문자 유형별 비중	1
3. 방문자 특성	2
II.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 특성	4
1. 인구통계적 특성	4
2. 모바일 활동 특성	6
III. 제주 한달살이 선호 숙박지	7
1. 연령대별 선호 숙박지	8
2. 성별 선호 숙박지	9
3. 가족 동반자 선호 숙박지	10
IV. 제주 한달살이 선호 방문지	11
1. 연령대별 선호 방문지	12
2. 가족 동반자 선호 방문지	13
3. 미취학 자녀 동반자 선호 방문지	14
[참고] 원천 데이터 및 가명결합 결과	15

I. 제주 방문자 특성

- ◇ 지난 1년간^{'21.8월~'22.7월} 약 933만명의 내국인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
 - 이 중 94%^{876만명}가 7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며, 한달살이 방문자는 0.4%인 3만5천여명으로 추산
- ◇ 40세 미만, 여성, 수도권 거주자 및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제주 방문을 선호
 - 특히, 평소에 '레저' 관련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제주 선호

1. 방문자 규모

- 통계청 인구통계등록부와 SKT 통신정보를 가명결합한 총 16,762천명* 중 1년 동안^{'21.8~'22.7} 제주를 방문한 사람은 308만명으로서 18.4% 수준
- 이를 전체인구로 추정** 시 총 933만명이 동 기간 중 제주를 방문

* '21.8월~'22.7월 기간의 제주 방문자 중 제주도민 및 180일 초과 체류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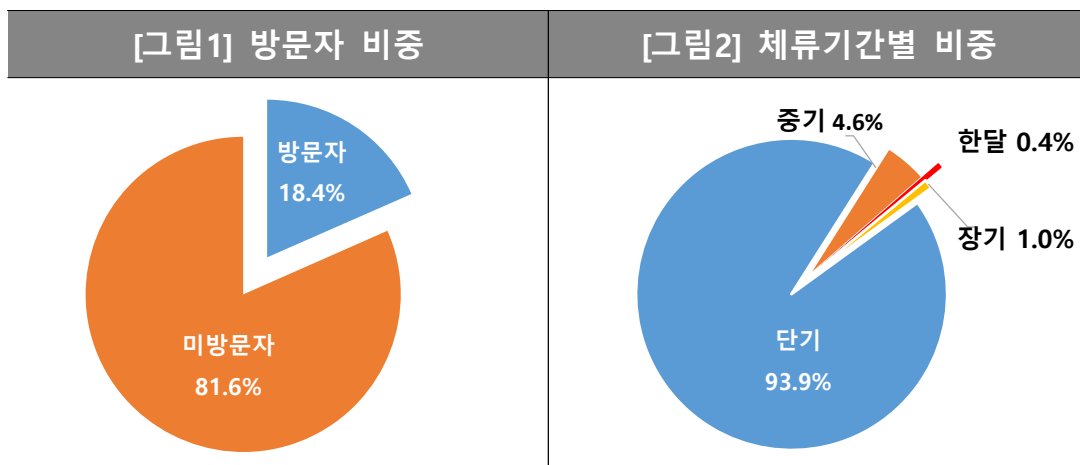
** 통계청의 시군구/성별/연령대별 내국인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SKT 고객분포에 따른 제주방문자 수를 환산하여 추정

2. 방문자 유형별 비중

- 제주 방문자 중 7일 이내 체류한 단기방문자의 비중이 93.9%로 대부분 차지
- 한달살이* 방문자는 0.4%인 약 34,500명, 32일 이상 장기방문자**는 1.0%인 약 99,500명으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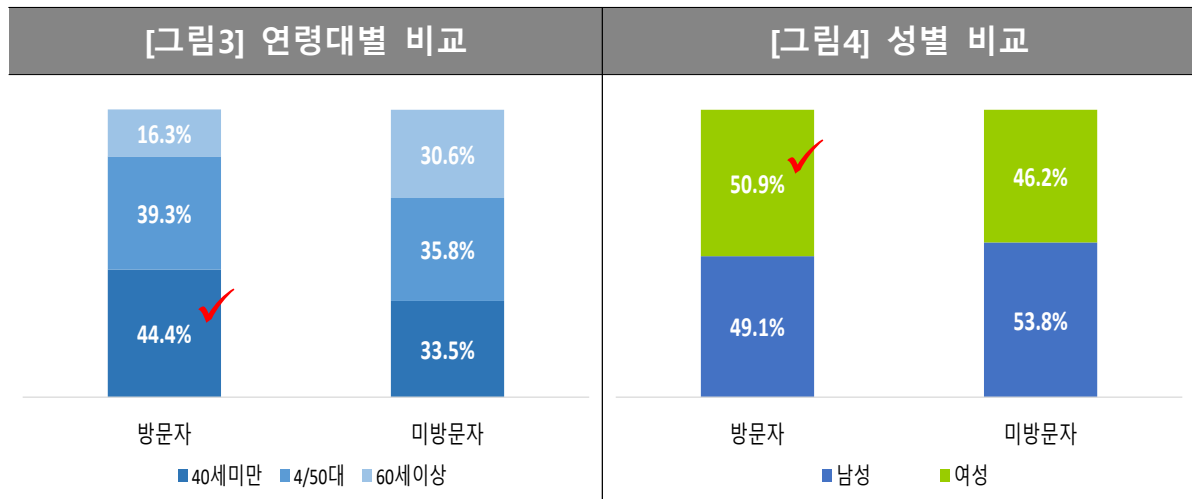
* 한달살이 : '21.8월~'22.7월 중 최장 체류기간 28일~31일인 방문자

** 장기체류자 : 동 기간 중 최장 체류기간 32일~180일인 방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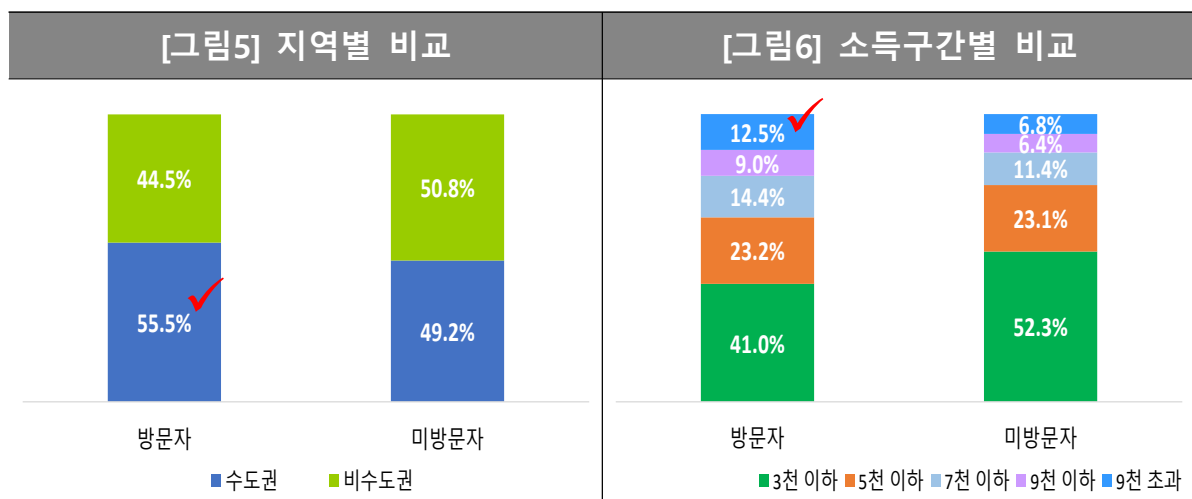
3. 방문자^{933만명} 특성

- (연령대별) 40세 미만이 방문자의 44.4%로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주방문 경향도 큰 것으로 나타남(미방문자 중 40세 미만 비중^{33.5%}의 1.3배)
- (성별) 여성이 방문자의 50.9%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제주방문 경향도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미방문자 중 여성 비중^{46.2%}의 1.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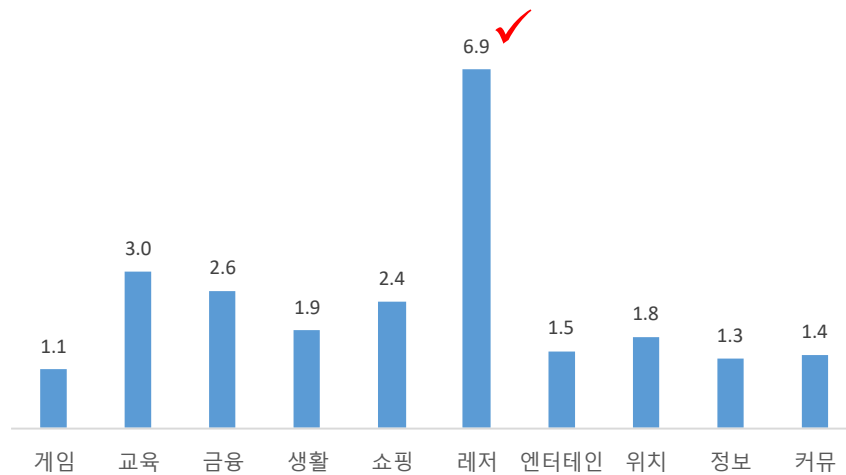
- (지역별) 수도권 거주자가 방문자의 55.5%를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에 비해 제주방문 경향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미방문자 중 비중^{49.2%}의 1.1배)
- (소득구간별) 소득*이 높을수록 제주방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자 중 9천만원 초과 비중 12.5%로 미방문자 중 비중^{6.8%}의 1.8배)

* '20년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기준 소득총액(근로자 한정)



- (모바일 활동별) 평소 모바일 콘텐츠 이용일수가 많을수록 제주방문 경향이 높으며, 특히 레저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기] 모바일 콘텐츠 이용일수 비교*



* 연간 '21.8월 ~ '22.7월 해당 콘텐츠 이용일수의 중위수 비율(=방문자^{중위수}/미방문자^{중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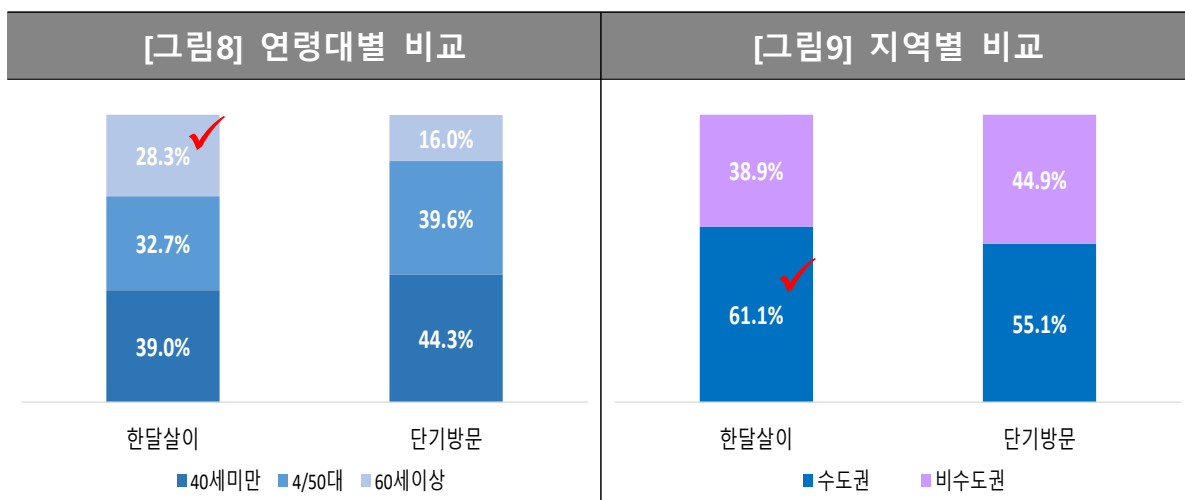
II.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 특성

- ◇ 한달살이를 선호하는 사람은 60세이상, 여성, 수도권 거주자, 유주택자 등이며,
 -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여 한달살이가 경제적 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달살이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많음(특히, 60세 이상이 많이 동반)
- ◇ 한달살이 방문자는 평소 '레저' 관련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며,
 -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교육 콘텐츠에도 관심이 큼(특히, 1명일 때 더 큰 관심)

- 연간 제주방문자 933만명 중 한달살이로 파악된 34,509명에 대하여 인구통계 및 모바일 활동 특성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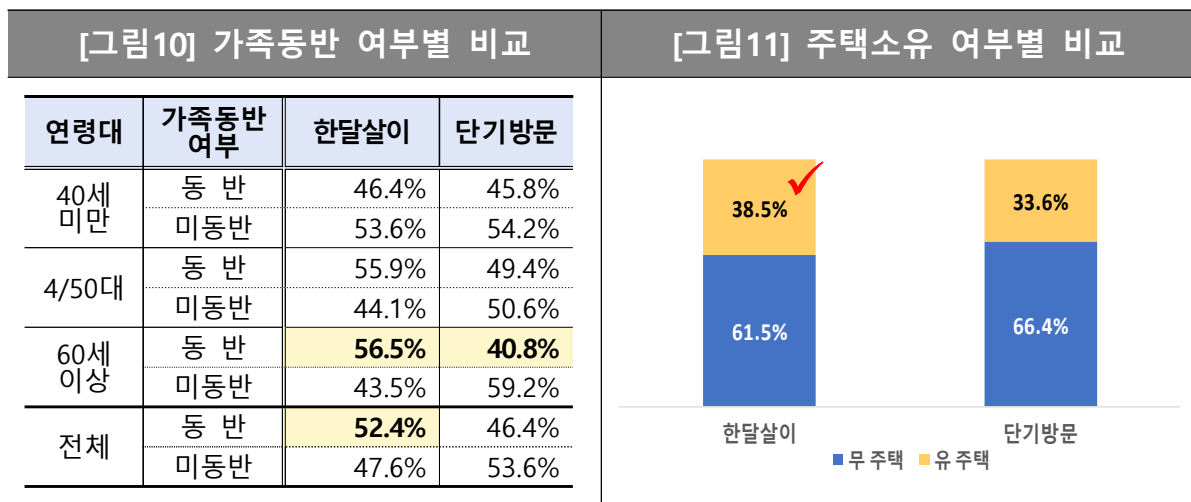
1. 인구통계적 특성

- **(연령대별)** 40세 미만 젊은층이 한달살이 중 39.0%로 가장 많고, 4/50대^{32.7%}, 60세 이상^{28.3%} 순이며,
 - 특히, 60세 이상은 한달살이의 28.3%를 차지하여 단기방문 내의 비중 16.0% 보다 1.8배 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수도권 거주자가 한달살이의 61.1%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단기방문 내의 비중^{55.1%}보다 1.1배 커 타 지역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도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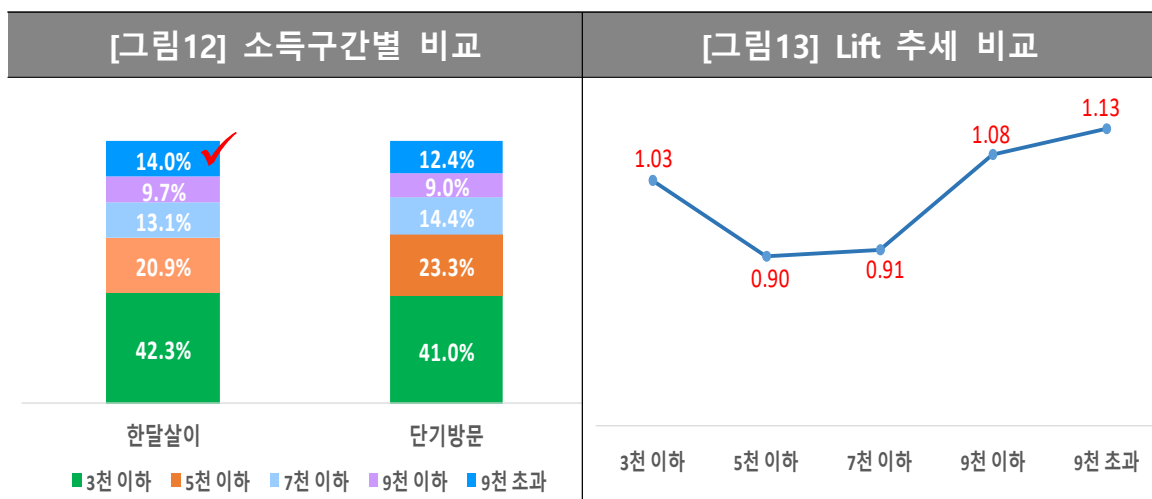
- (가족동반 여부별) 한달살이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비중 52.4%), 특히 60세 이상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높음
(60세 이상은 한달살이 중 56.5%로서 단기방문 내의 비중 40.8%의 1.4배)
- (주택소유 여부*별) 한달살이 비중은 무주택자^{61.5%}가 유주택자^{38.5%}보다 크나, 한달살이 경향은 유주택자가 다소 크게 나타남
(유주택자의 한달살이 내의 비중 38.5%, 단기방문 내의 비중 33.6%)

* 개인별 주택 소유 여부를 의미



- (소득구간별) 한달살이 근로자 중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42.3%로 가장 많으나, 고소득자일수록 단기방문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이 커짐
(Lift*추이 : 5천만원이하 0.9배 → 9천만원 초과 1.13배)

* Lift^{소득구간} = (한달살이 비중)÷(단기방문 비중), (예: Lift^{9천초과} = 14.0%/12.4%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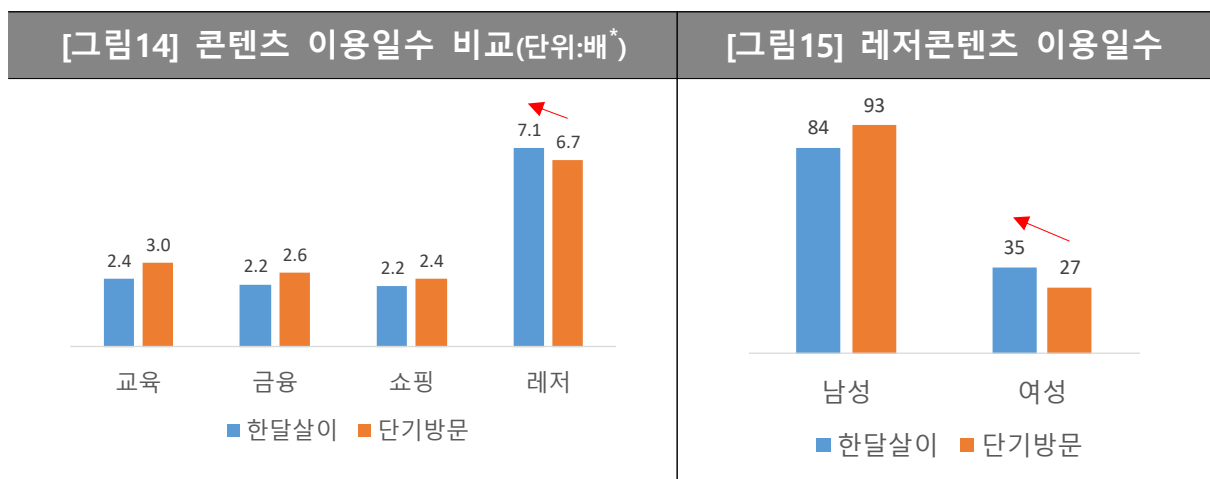


2. 모바일 활동 특성

□ (콘텐츠 이용) 평소 레저 콘텐츠 이용일수는 단기방문자보다 한달살이 방문자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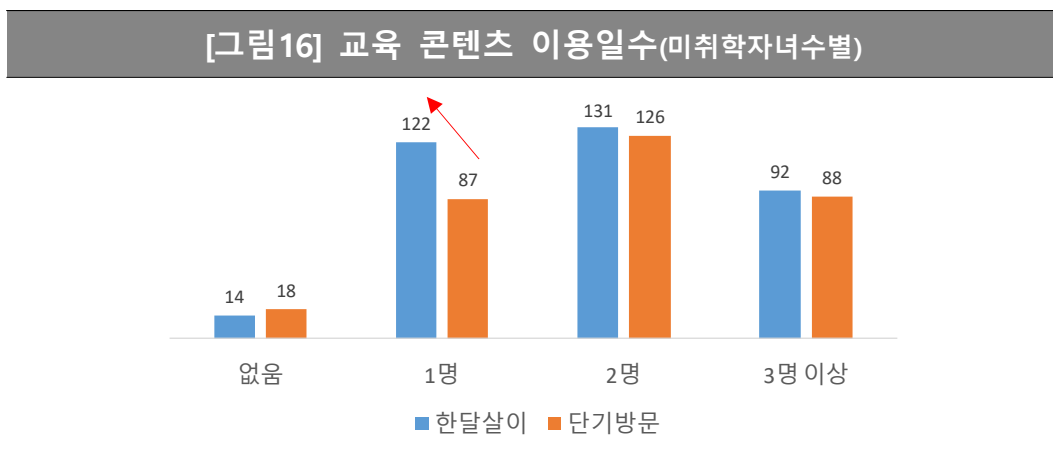
○ 반면, 교육, 금융, 쇼핑 등 그 외 분야의 콘텐츠 이용일수는 단기방문자의 이용일수가 더 많음

○ (레저^{여성}) 레저 콘텐츠 이용일수는 한달살이 여성^{35일}이 단기방문 여성^{27일}에 비해 1.3배 더 많아 한달살이 여성의 레저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일수 중위수 비율(=한달살이 중위수/단기방문 중위수)

○ (교육) 미취학 자녀가 있는 한달살이 방문자는 교육 콘텐츠에 큰 관심
 - 특히,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콘텐츠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제주 한달살이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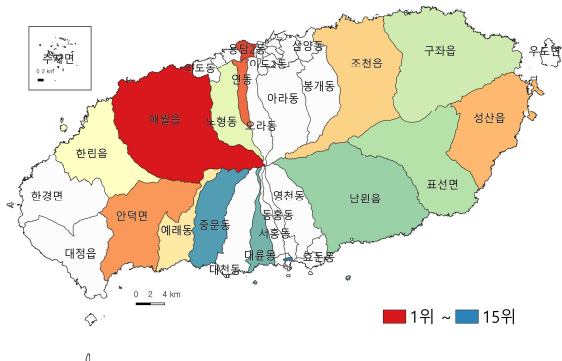
- ◇ 한달살이 방문자는 제주시내를 벗어나 읍·면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
 -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올레길과 가까우며, 오름과 숲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제주다운 지역이라는 장점 보유
- ◇ 여름철에는 대부분 북쪽 해변 지역과 동쪽 중산간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
 - 60세 이상 노년층은 해변을 선호하는 40세 미만과 달리 성산, 표선 등 중산간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

□ (한달살이) 한달살이 선호 숙박지*는 애월, 구좌, 조천, 성산, 한림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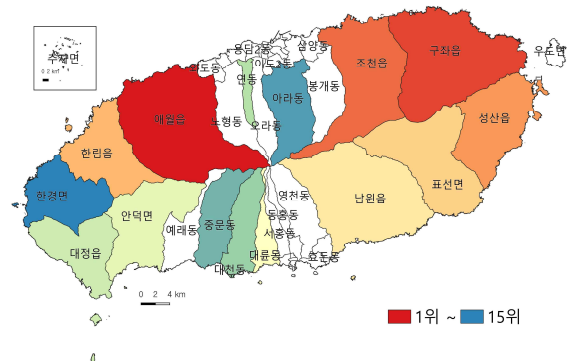
○ 특히, 애월읍은 한달살이의 원조격인 지역으로서 모든 방문자가 최고로 선호하는 숙박지로 나타남

* 숙박지 정의 : 방문자별로 방문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숙박지로 정의

[그림17] 전체 방문자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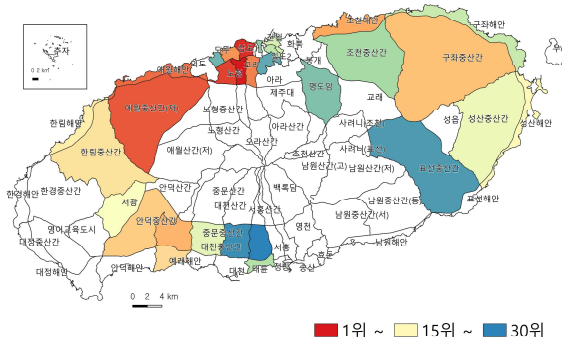


[그림18] 한달살이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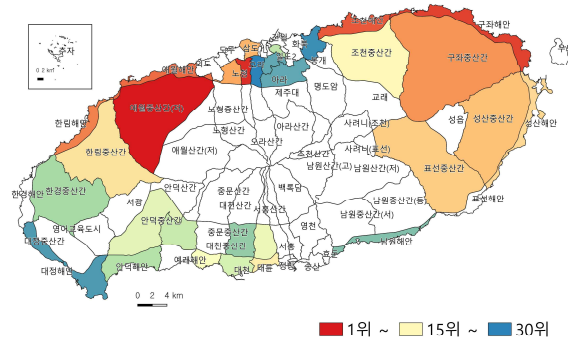


□ (여름 한달살이) 여름철에는 주로 북쪽 해안가 지역을 많이 선호하며, 동쪽 중산간 지역도 선호하는 경향

[그림19] 전체 방문자 선호 숙박지(여름)



[그림20] 한달살이 선호 숙박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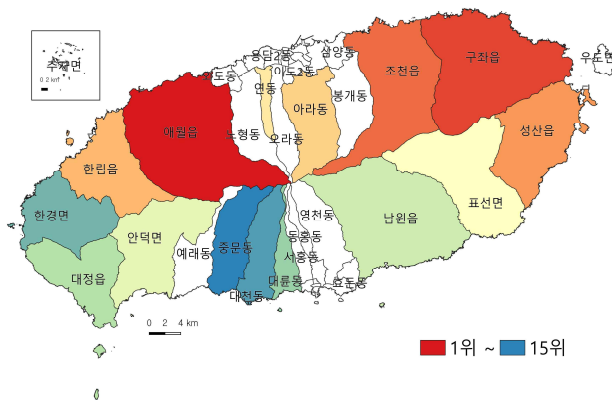


1. 연령대별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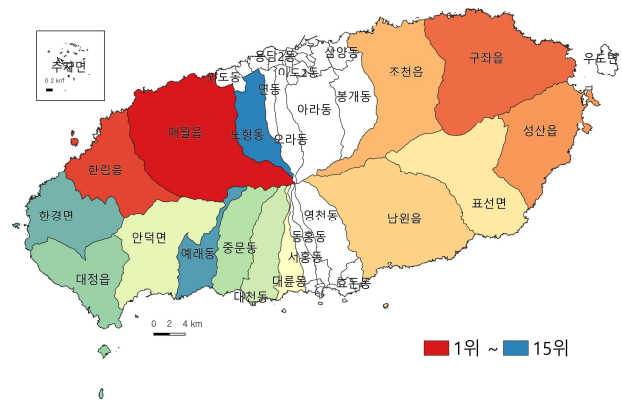
□ 40세 미만과 60세 이상 모두 제주시내보다 애월, 조천, 구좌, 한림, 성산 등 주로 북쪽의 읍면지역을 한달살이 숙박지로 선호

○ 특히,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따듯한 남원, 표선 지역을 40세 미만보다 선호

[그림21] 40세미만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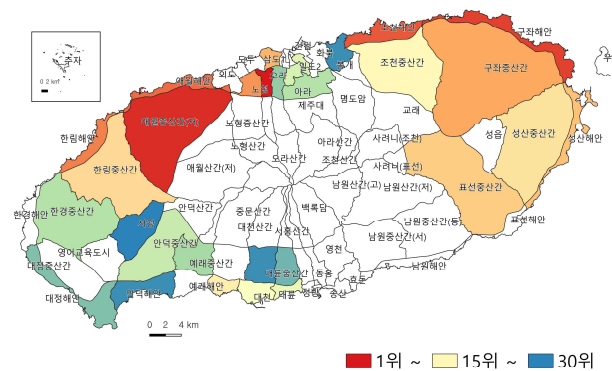


[그림22] 60세이상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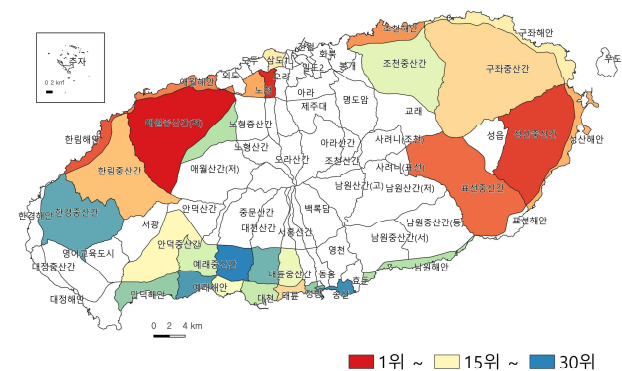


○ (여름 숙박지) 40세 미만은 북쪽 해변을, 60세 이상은 성산, 표선 등 중산간 지역을 선호

[그림23] 40세미만 선호 숙박지(여름)



[그림24] 60세이상 선호 숙박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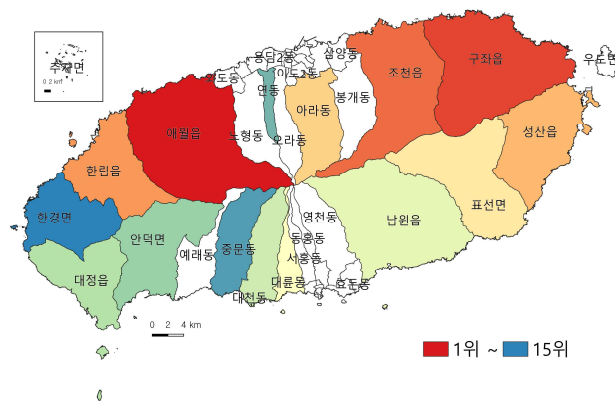


2. 성별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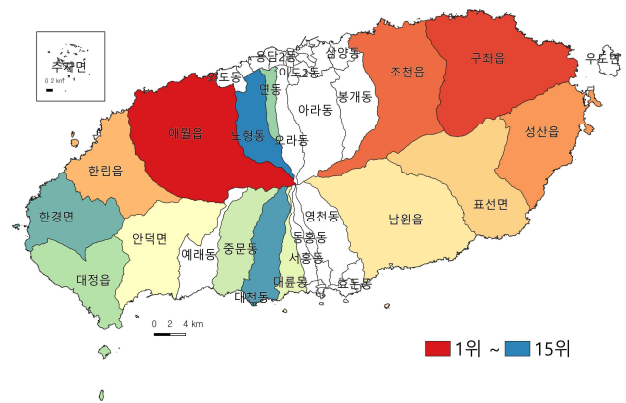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 제주시내보다 애월, 조천, 구좌, 한림 등 주로 북쪽의 읍면지역을 한달살이 숙박지로 선호

○ 남성은 북쪽 아라동이, 여성은 남쪽 남원읍이 선호 순위가 상승

[그림25] 남성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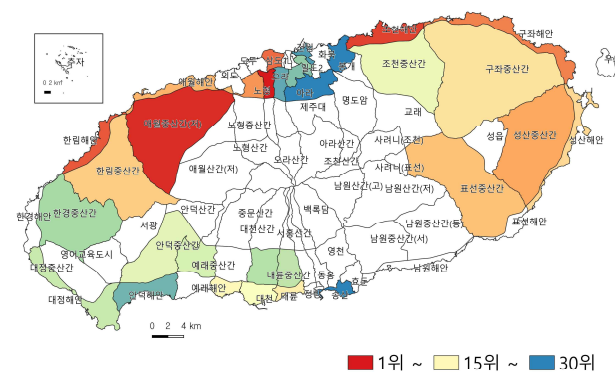


[그림26] 여성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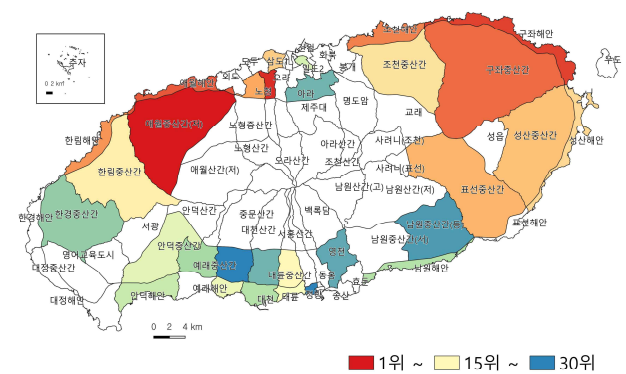


○ (여름 숙박지) 남녀 모두 북쪽 해변을 여름 숙박지로 선호하며, 특히 여성은 동쪽 중산간 지역의 선호도 순위가 상승

[그림27] 남성 선호 숙박지(여름)



[그림28] 여성 선호 숙박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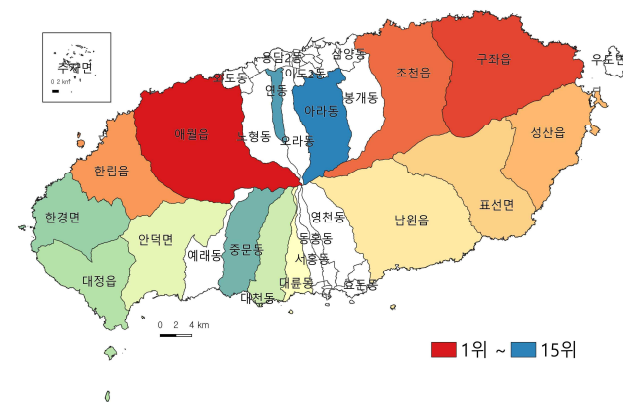


3. 가족 동반자 선호 숙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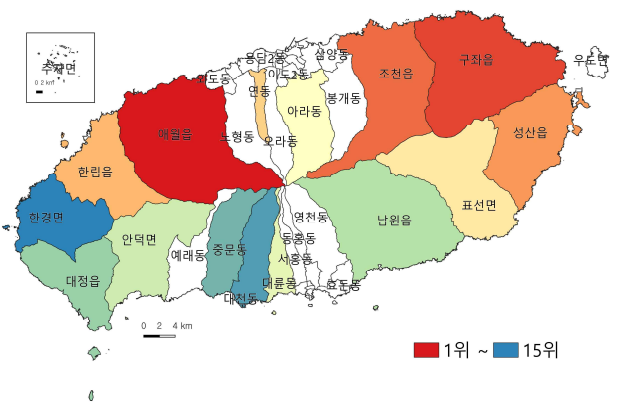
□ 가족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애월, 조천, 구좌, 한림 등 주로 북쪽의 읍면 지역을 한달살이 숙박지로 선호

○ 가족동반자는 미동반자에 비해 남쪽 지역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제주 시내의 선호도는 하락

[그림29] 가족 동반자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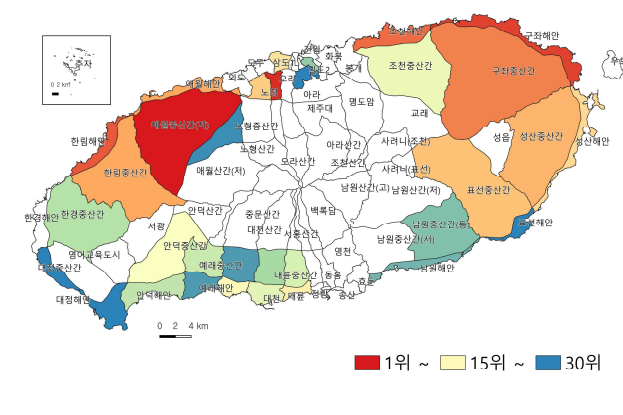


[그림30] 가족 미동반자 선호 숙박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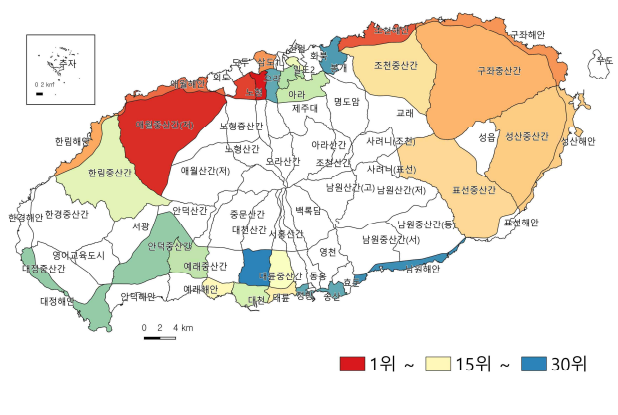


○ (여름 숙박지) 가족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북쪽 해변을 여름 숙박지로 선호하며, 특히 가족동반자는 구좌, 한림 중산간 지역의 선호도가 증가

[그림31] 가족 동반자 선호 숙박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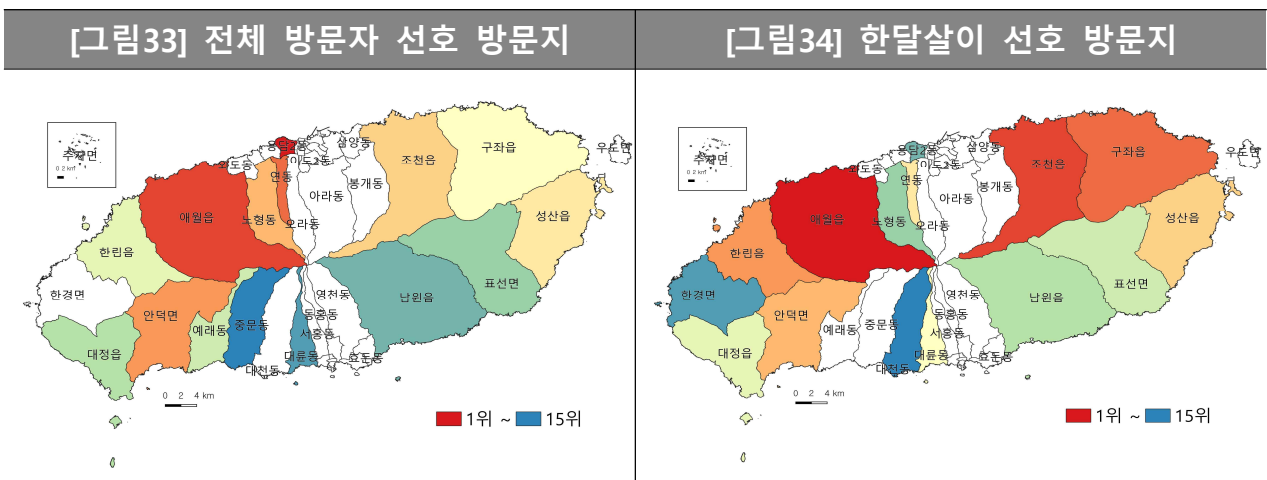
[그림32] 가족 미동반자 선호 숙박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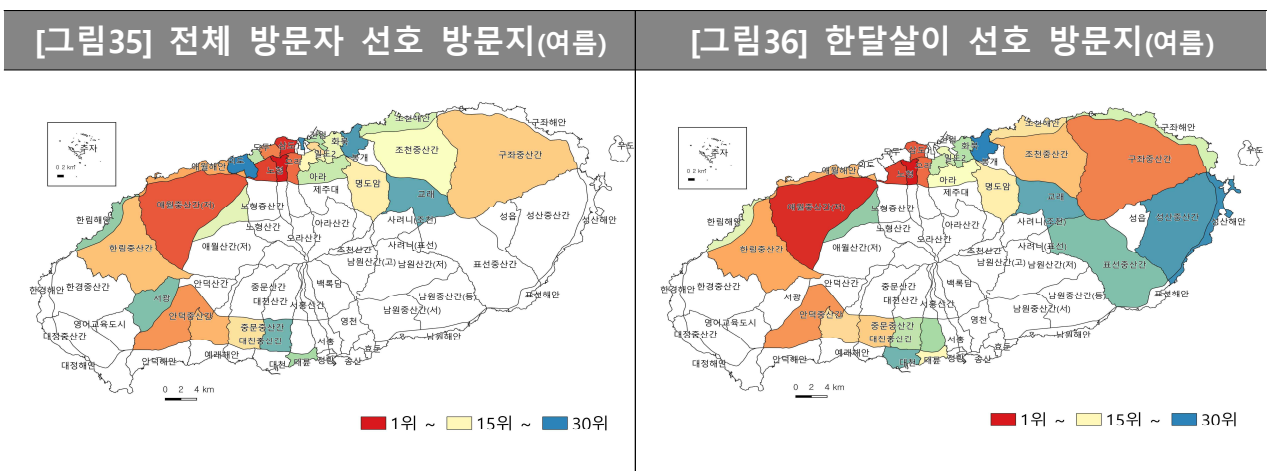
IV. 제주 한달살이 선호 방문지

- ◇ 한달살이 방문자는 숙박지 선호 경향과 유사하게 '바다', '오름', '숲길' 체험이 용이한 읍·면 지역 방문을 선호
- ◇ 여름철에는 대체로 해변지역 보다 북쪽 중산간 지역을 방문지로 선호
 - 특히 미취학자녀 동반자는 목장, 농장,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이 용이한 중산간 지역의 방문을 선호

□ (한달살이) 한달살이 방문자는 '바다', '오름', '숲길' 체험이 용이한 애월, 조천, 구좌, 한림 등을 주요 방문지로 선호



□ (여름 한달살이) 여름철에는 단기방문자에 비해 표선, 성산 등 동쪽 중산간 지역의 선호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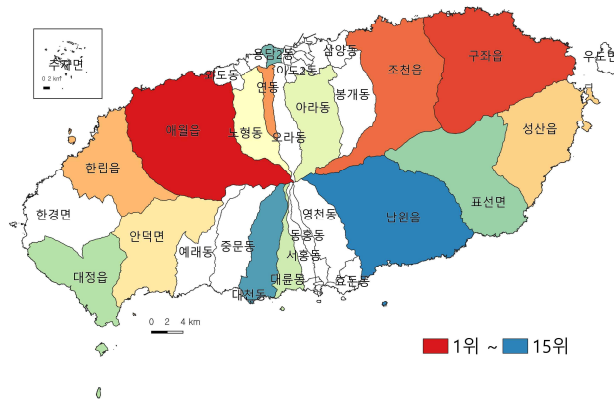
1. 연령대별 선호 방문지

□ 40세 미만과 60세 이상 모두 북쪽 읍면 지역의 선호도가 높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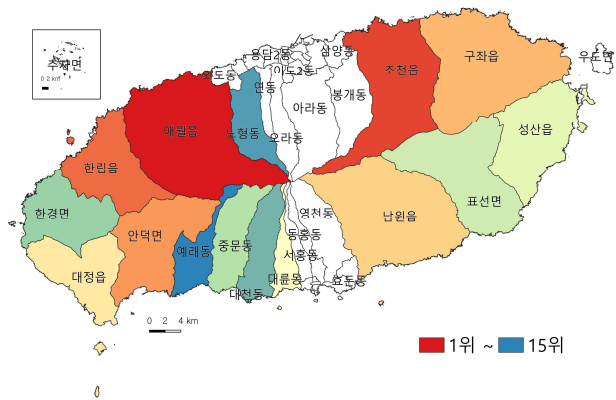
○ 특히, 60세 이상은 제주시내를 벗어난 한림, 남원, 한경 등 읍면지역의 선호도도 높음

○ 반면, 40세 미만은 제주 시내 선호순위가 60세 이상보다 높음

[그림37] 40세미만 선호 방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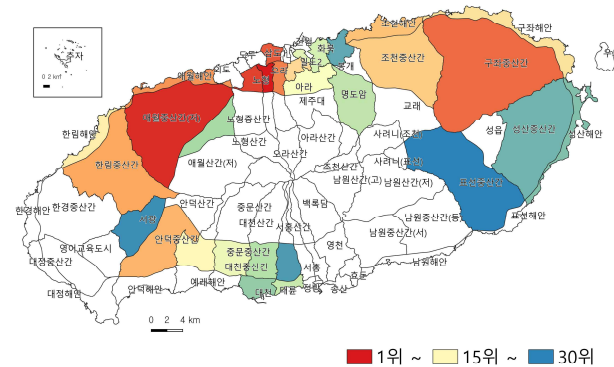


[그림38] 60세이상 선호 방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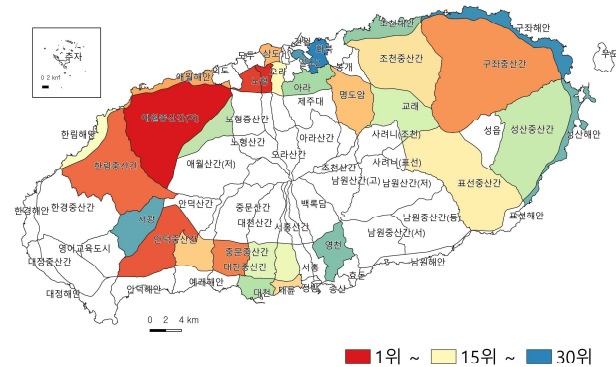


○ (여름 방문지) 40세 미만과 60세 이상 모두 해안지역 보다는 중산간 지역의 방문 선호도가 높음

[그림39] 40세미만 선호 방문지(여름)



[그림40] 60세이상 선호 방문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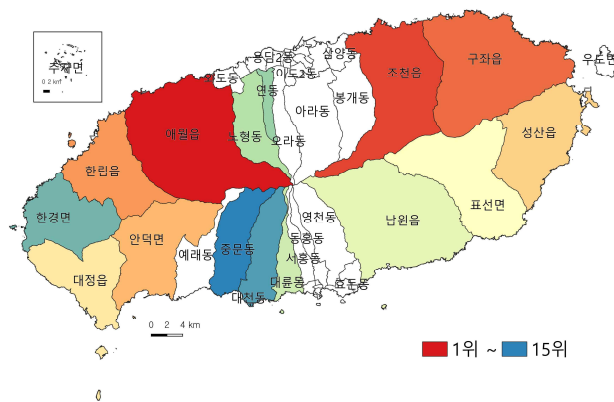


2. 가족 동반자 선호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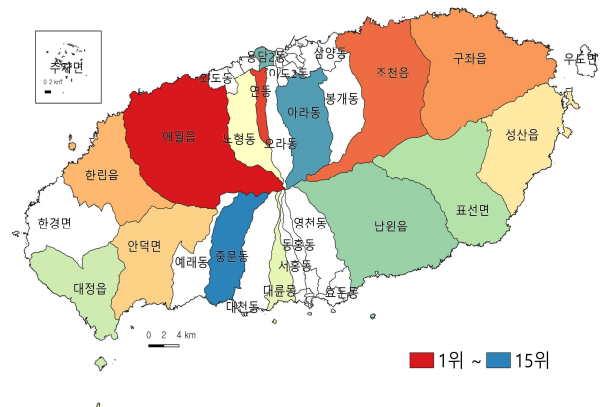
□ 가족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애월, 조천, 구좌, 한림 등 주로 북쪽의 읍면 지역을 방문지로 선호

○ 가족동반자는 미동반자에 비해 읍면 지역의 방문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제주 시내의 선호도는 하락

[그림41] 가족동반자 선호 방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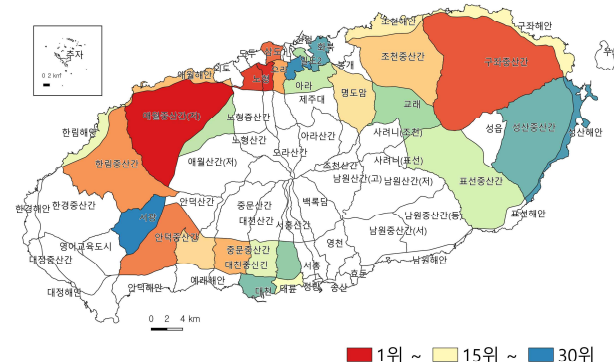


[그림42] 가족 미동반자 선호 방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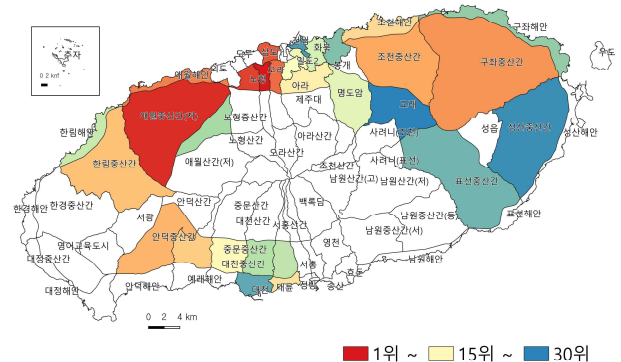


○ (여름 방문지) 가족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해변보다는 중산간 지역의 방문을 선호하며, 특히 가족동반자는 가족 미동반자에 비해 구좌, 한림, 안덕, 중문 중산간 지역 등의 방문 선호도가 상승

[그림43] 가족동반자 선호 방문지(여름)



[그림44] 가족 미동반자 선호 방문지(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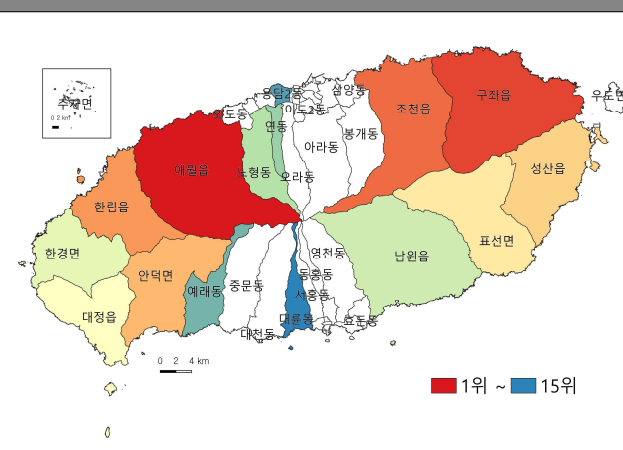


3. 미취학 자녀 동반자 선호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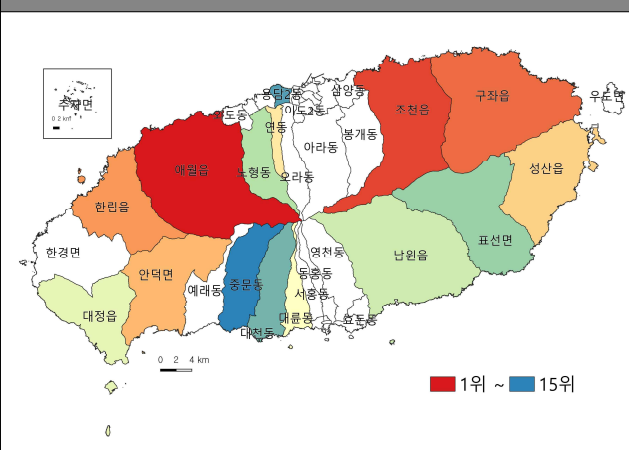
□ 미취학자녀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애월, 조천, 구좌, 한림 등 주로 북쪽의 읍면지역을 방문지로 선호

○ 미취학자녀 동반자는 미동반자에 비해 서쪽의 한경면, 대정읍, 예래동의 방문 선호 순위가 다소 상승

[그림45] 미취학 동반자 선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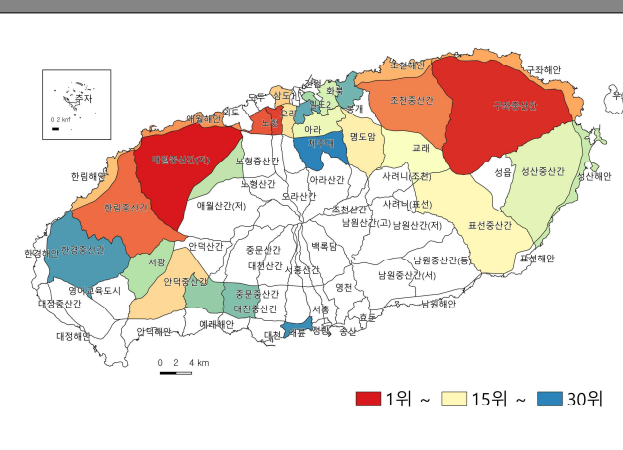


[그림46] 미취학 미동반자 선호지(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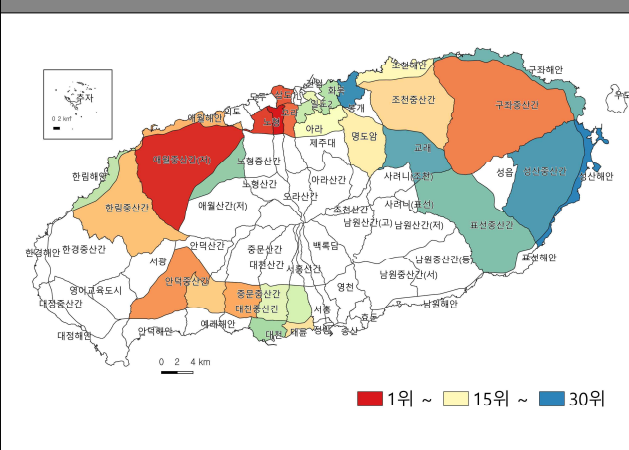


○ (여름 방문지) 미취학자녀 동반자는 미동반자에 비해 북쪽 해안지역 및 체험형 관광이 용이한 구좌레일바이크, 한림목장, 한경농장 등 중산간 지역의 방문 선호도가 상승

[그림47] 미취학 동반자 선호지(여름)



[그림48] 미취학 미동반자 선호지(여름)



참고 원천 데이터 및 가명결합 결과

1. 원천 데이터

- 통계청 : 통계등록부(인구·가구), 주택소유 DB, 건강보험자료
- SKT : 통신 모바일 위치·이동정보, 모바일 콘텐츠 사용정보(여가취미 등)

2. 분석 데이터

- (데이터 결합) 통계청 자료와 SKT 자료를 인구단위로 가명결합*하여 개별인구별 제주 방문 관련 정보 확보
 - * 결합키 : 성명+생년월일+성별(Hash함수로 암호화)
- 인구정보 부실자* 제외(SKt 원천 데이터의 약 11.1% 누락 발생)
 - * 외국인 등록정보 상이자 및 생년월일 불일치자 등
- (분석 모집단) 가명결합된 데이터 중 제주거주자 및 180일 초과 체류자 등을 제외한 약 1,676만명을 모집단으로 정의

